이베로아메리카 제13권 2호[2011. 12] : 265~293

스페인어 IT 분야 신조어 수용 양상

최 홍 주*
(Choi, Hong-Joo)

<Abstract>

Aspectos sobre Neologismos en el Lenguaje Informático Español

Estamos viviendo en una sociedad en la que el dominio de las nuevas tecnologías se hace cada día más patente. El desarrollo de la actividad científica y tecnológica se relaciona directamente con la necesidad de designar nuevos conceptos y productos que hasta ahora no existían. Este hecho es de especial interés para el ámbito de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de las Comunicaciones, ya que está revolucionado a toda velocidad nuestra forma de comunicarnos. Debido a varios factores las designaciones de las nuevas tecnologías informáticas se realizan en inglés. Por lo tanto, las comunidades lingüísticas hispanohablantes se enfrentan al reto de comunicar esos conceptos y términos anglosajones en lengua española. Se está planteando la necesidad de, por un lado, disponer de una terminología científica en la lengua española y, por otro lado, controlar y regular la invasión de neologismos y extranjerismos. El objetivo del presente estudio consiste en revisar el panorama general de la situación del español como lengua de comunicación de las

*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Email: hongjoos@ulsan.ac.kr

tecnologías informáticas. Para ello, hemos tomado como objeto de análisis los artículos de la sección de Informática que se han publicado en varios periódicos tanto españoles como mexicanos.

[Key Words: Lenguaje Científico/ Lenguaje Iformático/ Neologismo/ Extranjerismo/ ELE]

[주제어: 과학 기술 분야 언어 / 정보 통신 분야 언어 / 신조어 / 외래어/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교육]

Ⅰ. 들어가는 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그리고 개념들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다. "디지털 사회"라는 말이 더 이상 공상 과학 영화나 소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 특히 정보 통신 분야(IT)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이에 관련된 지식들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었고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의 개발과 사용은 의사소통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만든다. 따라서 정보 통신 분야의 용어는 더 이상 전문용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로 간주하여야 한다.

IT 분야에서 새로운 지적, 물리적 생산물이 생겨나면 필연적으로 이에 속한 개념이나 표현방식들은 새로운 기호내용의 출현 즉 신조어들을 필요로 한다. 급속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 통신 분야의 생산물들은 그만큼의 많은 어휘들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

야 할 부분은 영어 어휘의 공격적인 침투 현상이다. 정보 통신 분야 신조어의 특징은 영어가 “범세계적 어휘(Cosmopolitan Vocabulary: Hughes, 2002)”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Microsoft나 Apple같은 미국 회사들이 IT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니 관련 용어들이 영어로 만들어지고 있고 신속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으로 인해 신문 방송계의 언론인들은 영어 어휘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 문화권을 제외한 나머지 언어 문화권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자국어 순화에 언어학자들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성적인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 국립국어원, 문화관광부, 한국교열기자협회 등에서 우리말 순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료집 등을 발간하고 있다. 스페인어는 스페인어 “과학기술분야 용어위원회(La Comisión de Vocabulario Científico y Técnico)”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용어 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원(RAC: Real Academia de Ciencias)”에서는 “과학 기술 용어집(Vocabulario Científico y Técnico)”을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혁명”이라 불리는 IT 분야의 발전 속도에 비례해 외래어들이 물밀 듯 유입되고 있고 스페인어의 붕괴현상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스페인어의 생존과 유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외래어의 유입과 사용이 근래에 그리고 IT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어휘 확장”이 최근에 급속도로 진행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스페인어 사용 국가 수와 IT 분야 신조어의 특성을 고려하면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정보 통신 분야의 새로운 어휘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유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분석을 하는데 두도록 하고 후속 연구에서

분석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용어들의 생성과정을 연구한다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어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스페인어 IT 분야 신조어 수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관련 기사를 다루는 최근의 신문 기사들에서 발췌한 어휘를 중심 자료로 삼아 분석하였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정리해 발간한 용어집, 논문 등에 나타나는 어휘들도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Ⅱ. 스페인어 IT 분야 용어 분석

과학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세계 여러 문화권들 간의 교류 빈도를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고 이러한 교류에 의해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언어접촉은 신조어와 차용어의 증가로 이어진다. Lázaro Carreter (2008)의 언어학 사전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신조어(neologismo)는 “새로 만들어진 단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명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라고 정의된다. 또한 “외래어(extranjerismo)”는 일반적으로 외국어에서 들어와 번역되지 않고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일컫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분야의 발전은 미국의 주도 하에 있고 전세계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어휘의 차용은 신조어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조어(neologismo)”의 개념을 “외래어(extranjerismo) 또는 영어 차용어(anglicismo)”까지 확장하여 이해하고 사용하고자 한다.

1. IT 분야 영어 어휘의 표기와 번역

2010-2011년 현재까지 스페인에서 발행되는 유력 일간지들에서 정보

통신 분야 관련 기사 15개를 선정하여 우선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점은 외래어 사용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2011년 1월 6일자 El País지의 "Las tabletas inundan el CES(CES 2011 태블릿 기기 물결)"이라는 기사를 분석해보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하는데 총 304단어 가운데 고유명사를 포함한 외래어가 25단어로 약 8%에 달한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도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나 지식이 없으면 기사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전문용어(tecnicismo / lenguaje especializado)의 특성상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개념화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거나 새로 생겨난 단어들의 경우 순화 작업을 거치게 되면 쉽게 풀어서 이해하도록 만들어져 하나 이상의 단어가 되거나 음절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는 사용상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에서 권장하는 자국어 용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영어 어휘를 선호하기도 한다.

영어로 만들어진 IT 분야 용어들이 스페인어에 유입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영어 용어 그대로를 번역 없이 바로 차용해서 쓰는 경우와 비슷한 용어를 스페인어에서 찾아서 적용시켜 쓰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몇몇 용어들은 영어와 이의 스페인어 번역이 동시에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다음은 스페인어의 번역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 번역 용어 대신 영어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영어 우세 용어들의 예들이다.[1)]

1) 앞서 언급한대로 분석의 대상은 IT 분야에 대한 기사를 다루는 최근의 신문 기사들에서 발췌한 어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정리해 발간한 용어집, 논문 등에 나타나는 어휘들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대상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스페인에서 발간된 일간지와 참고문헌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용어집 등에서 발췌한 자료이므로 자료수집 과정에서의 주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표1> 번역되지 않고 사용 되는 IT 용어

번역되지 않고 사용 되는 용어	
영어	스페인어
antivirus	antivirus
click	clic
cursor	cursor
display	monitor
gigabyte	gigabyte
megabyte	megabyte
modem	módem
web page	página web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영어단어 *click*의 경우 picar 또는 marcar라는 스페인어 동사의 사용이 권장되었긴 하지만 실제 인터넷 사용자들이 쓰는 용어는 스페인어의 음운규칙을 적용해 “k”가 빠진 “clic”이라는 명사에 “hacer(−하다)”라는 동사를 붙여 “hacer clic(클릭하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web*과 관련된 용어들은 아직 사용상의 혼돈이 존재하는데 스페인어로 직역하여 “red mundial”, “red”, “telaraña” 등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화자들이 영어 용어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web page*의 경우 인터넷 사용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정보 통신 분야의 용어들이 조금씩 정착되어 가면서 스페인어와 영어의 합성 형태인 “página web”의 사용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사 “página” 또는 “páginas”를 생략하여 “la web” 또는 “las webs”의 사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비슷한 용어를 스페인어에서 찾아서 적용시켜 쓰는 경우인데 영어 본래 어휘의 형태나 의미에서 크게 동떨어지지 않은 어휘들의 쓰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표2> 번역되어 사용 되는 IT 용어

번역되어 사용 되는 용어	
영어	스페인어
application	aplicación
bit (binary digit)	bit (dígito binario)
bridge	puente
console	consola
disk	disco
to format/format	formatear/formato
hypertext	hipertexto
mail address	cuenta de correo
port	puerto
processor	procesador
scanner	escáner
server	servidor

위의 용어들을 비교해보면 스페인어로 번역된 어휘들은 영어 어휘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기보다 영어 단어와의 형태적인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본래 용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번역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추측이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 때 스페인어 단어의 원래 의미와 전혀 다른 내용의 단어를 형태상의 유사성으로 선택해 사용하여 심각한 번역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port – puerto”이다. “컴퓨터 주변 기기 접속 단자”라는 의미로 쓰이는 영어 단어 *port*는 스페인어 용어로 puerto로 번역되어 쓰인다. 하지만 IT 분야에서 쓰이는 스페인어 용어 puerto는 “컴퓨터 주변 기기 접속 단자”라는 의미로 쓰일만한 단어의 본래 뜻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영어 용어와의 소리의 유사성보다 의미 반영에 중점을 두어 다른 스페인어 단어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conector / contactador / conexión 등의 단어가 용

어 자체의 의미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영어와 이의 스페인어 번역이 혼용되는 경우인데 분석한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영어, 스페인어 혼용 용어

영어, 스페인어 혼용 용어	
영어	스페인어
backup copy	copia de respaldo/copia de seguridad
bit map	mapa de bits
buffer/buffering	memoria inermedia/almacenando
chip	circuito integrado
control panel	panel de control
CPU (Central Processing Unit)	CPU (Unidad Central de Proceso)
hard disk	disco duro
hardware	soporte físico
software	soporte lógico

정리된 분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신조어의 스페인어 표기에 따른 어휘형성 과정의 특징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음역이나 의역을 통해 영어 단어를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영어 용어의 직접 사용도 두드러지는데 일상 생활에서 늘 접할 수 있는 *CD, DVD, Webcam, Software, USB* 등의 용어는 마치 스페인어 고유단어처럼 스페인어 어휘체계에 자리 잡았고 실제로 컴퓨터 용품 전문점에서 “concentrador(hub)” 또는 “erutador(router)”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를 정도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새로이 생겨나 영어 이름이 붙여져 세상에 소개된 단어들이 “스페인어화(castellanizar)”될 때 번역상의 오류가 많이 생겨나는 것인데 주로 OS(컴퓨터 운영 체제) 관련 용어들에서 흔히 발견된다. 단적인 예가 “inicializar”인데 영어의 *initialize*의 잘못된

번역이며 스페인어 고유 동사인 “iniciar”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IT 분야 용어의 또 다른 번역 오류는 영어 어휘 *fonts*를 “fuentes”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인데 단수 명사 fuente는 “우물, 샘, 분수 그리고 출처”라는 의미가 있을 뿐 “활자”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미전달이 정확히 되는 올바른 용어는 “tipografía”이다. 스페인어 단어의 원래 의미와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형태 또는 소리의 유사성으로 선택해 사용하여 범하게 되는 번역의 오류를 “falsos amigos” (Fernández Muera 2004, 83)라고 칭한다. 앞서 언급한 단어들 외에도 IT 분야에서 발견되는 오류들을 몇 가지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Falsos amigos[2)]

영어 단어	Falso amigo	올바른 스페인어 번역
(to) apply	aplicar	solicitar
(to) boot	botar	autocarrancar
(to) capture	capturar	captar
command	comando	orden

그렇다면 과학 기술 분야 용어에서 영어 차용어의 사용이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 기술 용어의 생산과 전달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과 언론 종사자들은 영어 어휘를 순화하거나 번역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전문지식을 과시하고자 하는 일종의 특권 의식(prestigio)의 표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러한 유행은 이미 IT 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의 용어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는 패션이나 디자인 그리고 경제 분야가 그러하다. 하

2) Sampedro Losada, P, J. (2000), http://www.ati.es/gt/lengua-informatica/externos/sampedr3.html (2011. 04.28).

지만 과학의 “정확성(precisión)”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새로이 만들어진 과학의 산물은 그것을 정확하게 개념화 한 영어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영어 용어를 사용하면 화자 자신이 명확하게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자가 분명하게 그것을 전달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다. 스페인어화(castellanizar)하여 풀어서 쓰거나 다른 번역 용어를 찾아 명명하게 될 경우 의미가 모호해져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 용어 (lenguaje especializado / lenguaje sectorial)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과 정보 통신 분야 신조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므로 용어 연구는 단순히 언어학의 단위를 넘어서 인지의 단위로 간주하여야 한다. IT 혁명과 이로 인한 신조어나 차용어의 유입의 실태는 한 언어권의 새로운 사회 문화적 현상이나 특징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스페인어 문화권의 IT 분야 영어 어휘 차용 실태가 제기하는 문제를 이문화 수용 실태와 양상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스페인 문화권에도 영어 교육과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 통신 분야 기술 이용자들이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다수의 번역가들이나 기자, 편집자들이 영어 어휘를 무분별하게 또는 틀리게 사용하고 있다. 또 전세계 과학 분야의 의사소통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일 언어문화권이라도 전문가들끼리는 영어 용어의 사용이 의사소통의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전문성, 학식, 권위 등을 돋보이게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스페인어 번역 용어를 찾는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 (Calvo Roy 2004, 168). 한 언어 문화권의 외래어의 사용 실태를 여러 측

면에서 분석해보면 언어 사용자들이 타문화 수용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2. 신조어와 언론 매체

언어의 변화 현상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이며 형태, 통사, 음성, 의미, 어휘 등 모든 부분에 해당되지만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겪는 부분은 어휘 부분이다. 어휘부는 패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며 확장되어 간다. 정보 통신 분야는 혁명이라 불릴 만큼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고 이는 발전 내용의 언어화와 직결된다. 이 분야에서 쓰이는 단어들은 어휘범주의 관점에서 보면 어휘목록에 실리지 않은 단어들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 뿐만아니라 정보 통신 기술의 모든 이용자들은 아직까지 내용측면에서 등가를 가진 스페인어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신조어나 언어 정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번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시작되어 스페인어 과학 기술 용어 생산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어져 왔고 2003년 마드리드에서 FECYT(Fundación Española para la Ciencia y la Tecnología)가 주관한 “Ciencia, tecnología y lengua española: la terminoogía científica en español(과학, 기술 그리고 스페인어: 스페인어 과학 용어)”라는 주제를 내건 국제 규모의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했다.[3] 이 세미나에는 여러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언어학자들 외에도 언론사 관계자 특히 편집자와 과학전문기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네 개의 패널

3) http://www.fecyt.es/fecyt/detalle.do?elegidaSiguiente=&elegidaNivel3=;SalaPrensa;publicaciones;estudiosinformes&elegidaNivel2=;SalaPrensa;publicaciones&elegidaNivel1=;SalaPrensa&tc=publicaciones&id=terminologia%20cientifica

가운데 한 개는 “과학 기술과 언론”이라는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는 과학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어 정보 통신 분야의 신조어 수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신문기사를 연구의 중심 자료로 선정한 이유는 매체가 가지는 동시성의 특징과 정보 통신 분야의 용어 사용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조어와 언론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신문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며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신문 언어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회 변화 현상과 이에 따른 언어 변화 특히 어휘 생성을 가장 생동감있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문기사는 지면과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으며 작성되고 대부분의 소식들은 연합뉴스, Agencia EFE 등과 같은 뉴스통신사를 통해 각종 신문, 방송에 제공되어 진다. 이런 특징이 새로운 단어들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학 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들은 뉴스통신사들이 영어로 타전하게 되고 빠르게 소식을 전해야 하는 기자들은 영어로 된 전문 용어와 신조어를 순화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적절치 않은 번역어를 사용하게 된다.

사실, 과학 기술 분야 전문 기자들은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특정 과학 기술의 내용을 기술 용어(tecnicismo)가 아닌 일상 언어(lengua común)를 사용하여 그 내용의 전문성을 떨어트릴 수 없는 반면에 일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해야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전문 용어의 의미와 스페인어 번역어를 찾아쓸 수 있는 전문 용어 사전이나 신속하게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어휘 해석집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의학용어사전

(Diccionario crítico de dudas inglés-español de medicina)"[4], "에너지분야용어사전(Diccionario español de la energía)"[5] 등의 사전이 발간된 상태이고 "과학기술원(RAC: Real Academia de Ciencias)"에서는 "과학 기술 용어집(Vocabulario Científico y Técnico)"을 Real Academia de Ciencias Exactas, Físicas y Naturales는 Diccionario Esencial de las Ciencias을 각각 발간하고 있다. 분자화학, 생화학 등의 전문용어해석집은 국제의과학기술번역가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인 Panacea[6]에서 제공하는 것이 유일하다.

과학 기술 분야의 신조어의 생산, 유포 그리고 사용은 해당분야 전문가, 언어학자 그리고 언론종사자들 모두의 책임이며 일이라 할 수 있다. "신조어와 언론"이라는 내용을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된 이유는 우선, 스페인어 IT 분야 신조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준 계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모국어 화자로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본 연구자가 범세계적으로 동시에 생산되는 정보 통신 분야의 신조어를 스페인어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가 바로 신문이기 때문이다. de Semir(2003)에 의하면 스페인 대도시 거주자들의 85.8%가 언론 매체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과학 기술 분야의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과학 기술 관련 지식의 생산은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담당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 유포하는 역할은 온전히 언론 매체에 주어져 있으며 용어 정립에도 깊숙이 관계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스페인 IT 분야의 신조어와 신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또 다른 이

---

4) Navarro González, F. (2000), *Diccionario crítico de dudas inglés-español de medicina,* Madrid: McGraw-Hill/Interamericana de España.

5) Martín Municio, A. y Colino, A. (2004), *Diccionario español de la energía,* Madrid: Doce Calles, http://www.miliarium.com/paginas/biblio/Externas/Introduccion.pdf.

6) http://medtrad.org/panacea.html

유는 자료조사를 하면서 같은 개념이나 상품이 스페인 일간지와 멕시코 일간지에서 조금씩 다르게 어휘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경우는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미국 영어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스페인에서는 사용되어지지 않거나 스페인어 동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동사들의 쓰임을 볼 수 있다.[7] 그래서 멕시코 스페인어와 스페인 스페인어의 IT분야 신조어 생성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 분석을 해보았다. 양국 주요 일간지들의 해당 섹션에서 몇 가지 주제-모바일 통신 기기(Tablet, 스마트폰), SNS(Social Network Service), 운영체제-를 선정하여 하나의 같은 주제가 양국에서 기사화될 때 어떤 용어들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부분도 바로 영어 어휘 차용에 대한 것인데 2011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의 핫이슈였던 "테블릿 PC"의 용어 차이였다. 스페인 일간지에서는 모두 tableta를 멕시코에서 출간된 신문의 기사들에서는 영어 단어인 *tablet*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5> 멕시코와 스페인의 IT 용어 비교

멕시코	스페인
tablet	tableta
Laptop	portátil
La App store	Tienda de applicaciones
Smart TV	Televisor con todo (Televisión inteligente)
El OS	El sistema operativo
soportadas(soportar-참다, 견디다)	apoyadas(sostenidas)
Los smartephones	Los teléfonos inteligentes

7) 중남미 스페인어 영어 차용어에 관한 연구들 참조: Blanch (1977); Moreno de Alba (1972; 1999); Rosenblat (1990); Haensch (2005); D'amore (2009).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구체적인 통계 결과를 뽑을 수 있겠지만 분석한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페인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용어들은 어느 정도 순화작업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같은 내용들이 멕시코 기사에서 표현될 때 영어 어휘 차용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영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La App store"처럼 *store*를 영어단어로 그대로 표기하면서 관사는 *store*의 스페인어 대입어인 tienda의 여성형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Los smartephones"도 이와 같은 예이다. "El OS"의 경우도 주목을 끄는데 정관사인 el을 사용한다면 Sistema Operativo의 줄임말인 El SO가 올바르겠지만 El OS로 표기하고 있다. 번역상의 오류도 soportadas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soportar는 영어 *supported*의 잘못된 번역으로 apoyadas 또는 sostenidas가 바른 번역이다. 중남미 스페인어의 영어 어휘 차용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Blanch 1977, 272; Moreno de Alba 1972, 23; 1999, 148; Rosenblat 1990, 350-354)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Blanch에 따르면 멕시코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과의 지리적인 근접성과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로 인해 교류가 많고 이는 언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푸에르토리코나 파나마 스페인어에도 관찰된다고 덧붙인다. 각 언어문화권의 언어정책이나 사회구조, 문화적 형태 그리고 지리적 영향에 따라 신조어의 수용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계속 만들어져 세상에 나올 기술과 상품들에 대해 스페인어 한림원 연합회(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가 신조어에 대한 용어 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ciberspanglish*의 무분별한 생산과 확산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과학 기술 분야보다 IT 분야의 어휘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와 관련된 어휘는 더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전달자인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언어정책 기관들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스페인어로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조어와 RAE 그리고 사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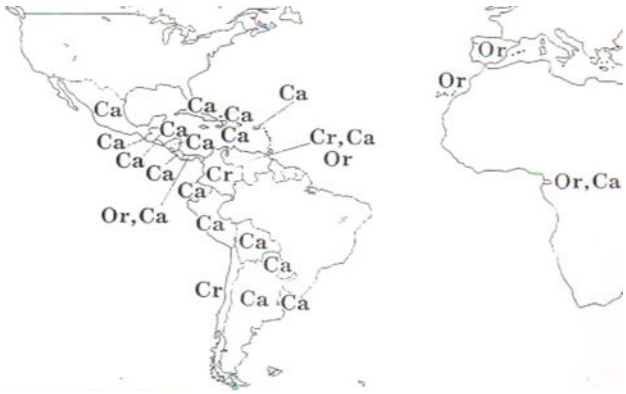
Ⅲ. IT 분야 신조어와 DRAE

스페인어는 스페인과 중남미 20여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스페인어 어휘의 다양함과 표현의 풍부함에서 이 같은 특징이 잘 드러난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는 화자들 혹은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 그리고 스페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스페인과 중남미에서 정보 통신 분야를 비롯한 과학 기술 분야의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컴퓨터”라는 단어이다. 스페인에서는 “ordenador”를 사용하며 중남미 다수 국가들은 “computador” 혹은 “computadora”라는 용어를 사용한다.[8]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스페인과 중남미에서 사용되는 정보 통신 / 과학 기술 분야의 용어들의 통일이 필요한가? 누가 어떠한 방법 또는 기준으로 용어 통일 작업을 해야 하는가?

8) 일본 동경대 스페인과 교수 Hiroto Ueda와 연구팀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스페인과 중남미 스페인어 사용국가들의 어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구, 운송수단, 생활용품”등 어휘항목을 만들어 하나의 사물이 각국에서 어떤 어휘로 불리워지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통계를 내는 작업이다: VARILEX (Variación Léxica del Español en el Mundo: http://lecture.ecc.u-tokyo.ac.jp/~cueda/varilex/). 영어 어휘 computer에 대한 조사를 하여 통계를 내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ordenador, Santiago에서는 computador를 그리고 Quito와 Lima에서는 여성형인 computadora를 사용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 전체에 대한 조사의 결과가 흥미로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computadora이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에서는 computador의 사용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세 단어의 사용 분포를 지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질문들은 현대 스페인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하나의 사물이나 개념이 동일 언어 문화권에서 각각 다르게 명명되어 진다는 사실은 언어 일관성(cohesión del lenguaje)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사소통 도구로서 언어의 통일성에 관한 원칙이나 규칙이 재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다시 ordenador와 computador로 돌아가 컴퓨터라는 단어가 두 지역에서 다르게 쓰이게 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ordenador라는 단어가 스페인어 어휘체계에 들어오기 전인 50, 60년대에는 “calculadora”가 사용되었는데 현재와 같은 [CPU], [메모리], [프로그램] 구조를 갖는 범용 컴퓨터 구조의 확립에 기여를 한 폰 노이먼(John Von Neumann)이 “전자계산기의 이론 설계 서론(Preliminary Discussion of the Logical Design of an Electronic Computing Instrument)”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calculator”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관련 분야의 스페인 학자들이 calculadora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확대되었다. 같은 시기 이미 프랑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informatique”과 “ordinateur”라는 단어들이 이슈로 등장하여 이 용어들의 사용이 확대되어 갔으나 스페인에서는 계



(Or-ordenador, Ca-computadora, Cr-computador)

속 컴퓨터를 calculadora로 부르고 있었다. 1997년 2월 23일 스페인 일간지 El Mundo에 마드리드 꼼쁠루뗀세 대학의 Antonio Vaquero Sánchez 교수가 기고한 "El Uso de la Palabra *Ordenador*"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1972년도에 들어와서야 ordenador가 스페인어 정보 통신 기술 용어 사전(Diccionario-Glosario de Proceso de Datos Inglés-Español, IBM)에 처음 등장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이 단어가 스페인에 들어온 시기인데 이즈음 스페인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관심과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컴퓨터 판매업자들의 광고와 더불어 대학, 연구소 등지에서 ordenador의 사용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처 순화작업을 거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Franco 독재 정권하에 있던 스페인은 프랑스에서 건너온 문화를 우월하다거나 앞서간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였다. ordenador외에도 프랑스 어휘의 영향을 받아 스페인 단어로 자리잡은 예(galicismo)가 많다.

IT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스페인어 전문 용어들의 이해와 학습에 있어 어려운 점은 하나의 개념이나 사물에 여러 종류의 스페인어 번역이 존재하거나 또는 관계 기관이 권장하는 순화된 용어까지 더해져 용어의 난립과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과 중남미의 해당 기관들이 나서서 우선 스페인어권 내에서의 용어 통일 작업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IT 분야 신조어들의 사용빈도나 어휘 범주 등을 조사하여 어휘목록을 만들어 목록에 등록된 단어들이 기존 언어체계에 자리잡아 제도화 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각 어휘 목록에는 수많은 어휘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들을 분석하여 단어를 선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신조어나 외래어의 유입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오는 현상이지만 최근들어 학계나 언론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

나 정책적인 요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스페인어를 지배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2.2.에서 우리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신조어에 대한 언론계의 관심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신조어, 외래어의 사용과 확대에 언론의 책임이 커지고 이에 대한 자성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RAE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되어왔다. Windows 95 프로그램의 스페인어 번역을 담당한 Xosé Castro에 의하면 IT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새로이 만들어지는 영어 어휘는 1000개에 이른다고 한다.[9] 엄청난 양의 새로운 단어들이 빠른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상의 의문이 드는 단어가 정책적인 합의를 얻어 RAE의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에 실리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린다. RAE의 특성상 언중들 사이에서 하나의 어휘가 완전히 자리잡은 후에야 사전에 등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컴퓨터 운영체제 등에 대한 용어 정립은 Mircrosoft사가 Windows 매뉴얼 등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면서 어느 정도 어휘 정립을 하였고 나머지 분야들은– 특히 최근들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모바일 통신기기 분야– 언론계에서 나서 사전이나 용어 해설집 등을 만들어내며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스페인 일간지 El País와 ABC의 Libro de Estilo나 Agencia Efe에서 발간한 Diccionario de Español Urgente 등이 좋은 예이다.[10] El País는 *chip* 대신 microprocesador를 *hardware*는 soporte físico로 *software*는 soporte lógico로 사용하길 제안한다. ABC의 Libro de Estilo는 영어에서 차용하여 만든 파생동사[11] computarizar 대신 “procesar los datos”라는 표현을 그리고 영어

9) http://www.factorhuma.org/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4956%3AInternet%2C+la++nueva+econom%C3%ADa+y+el+m%C3%B3vil+conmueven+el+espa%C3%B1ol&catid=4%3Anoticias&Itemid=11&lang=ca

10) Pfaffenberger가 1996년에 스페인어로 발간한 “Diccionario para usuarios de computadoras e Internet”도 참고할 수 있다.

어휘 *output*을 "salida" 또는 "potencia de salida"로 쓸 것을 제안한다. 흥미로운 점은 computarizar의 경우 DRAE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 동사의 변화 형태[12]도 규정되어 있다: "computarizar. 1. tr. Someter datos al tratamiento de una computadora".

José Antonio Millán[13]은 RAE와 IT 분야 전문 용어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언어학자 중의 하나인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RAE의 21판 사전에 informática의 "inform-"은 41단어에서 50회 등록이 된 반면에 22판에는 총 109단어에 124회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RAE 역시 IT 분야 신조어의 등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좀 더 많은 단어들이 등재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Millán(2004)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procesador, hipertexto, CD-ROM, arroba, correo electrónico, emoticono, página web, cargar(un programa), colgarse(un ordenador), equipo 등은 새로이 등재되거나 의미가 추가되었지만 servidor, enlace, DVD, email, mensaje, chat, chatear, sitio, dominio, bajar o subir un archivo, PC 등은 등재되지 않았거나 의미가 추가되지 않은 어휘들이다.[14]

---

11) 신조어 생성방식 중 파생어(derivación)는 굴절어미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의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어휘이다. 현대 스페인어의 어형성과 신조어의 유형에 대해서는 유연창(2004)을 참고할 수 있다.

12) http://buscon.rae.es/draeI/SrvltConsulta?TIPO_BUS=3&LEMA=computarizar

13) 에디터이자 번역가이며 작가활동도 하고 있는 Millán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Vocabulario(후에 La palabra로 변경)"라는 칼럼을 El País지에 연재하며 IT 분야 용어들을 다루어 왔는데 개인단위 연구로는 비교적 많은 양의 실용적인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다. 칼럼이 마무리 된 현재도 개인의 웹페이지에서 어휘들의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으며 알파벳 순으로 영어, 스페인어의 단어를 잘 정리해두어 매우 유용하다: http://jamillan.com/v_index.htm

14) 2001년 발간된 22판 DRAE에 새로이 등재되거나 의미가 추가된 어휘 목록: almacenar, análisis, antivirus, aplicación, arquitectura, arroba, autoedición, autoeditar, banco/base de datos, biochip, buzón, byte, campo, cargar, cederrón/CD-ROM, clic, colgar, compatible, compilador, compilar, computacional, configuración, correo

RAE의 공식 웹페이지에 가면 곧 발간될 23번째 사전에 대한 안내를 볼 수 있다. 반가움과 놀라움을 동시에 주는 사실은 이제 Internet이 DRAE에 등재가 된다는 것이다:

Artículo nuevo. Avance de la vigésima tercera edición
internet. 1. amb. Red informática mundial, descentralizada, formada por la conexión directa entre computadoras u ordenadores mediante un protocolo especial de comunicación. ORTOGR. Escr. t. con may. inicial.

Internet이 등재가 된다면 "usuario habitual de Internet" 정도의 의미를 가진 internauta 도 등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이용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화자로서 등재나 의미 추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blog (bloguero)나 chat(chateo) 또는 chatear 등이 있다. 최근 들어 매우 빠른 속도로 의사소통의 형태를 바꾸어가고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관련 용어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분야 용어위원회(La Comisión de Vocabulario Científico y Técnico)에서는 RAE에 chat, colgar, descargar,

---

electrónico, defecto (por), densidad, desplegable, digitalizar, dirección, directorio, editar/editor, ejecutar, emoticón/emoticono, ensamblar, entorno, equipo, formateo, formato, hardware, hipertexto, hoja de cálculo, icono, inicializar, lingüística computacional, macro(instrucción), metalenguaje, módem, multimedia, multiplete, multiprogramación, navegar, nudoocteto, output, página web, periférico, píxel, procesamiento, realidad virtual, red, registro, rutina, software, subprograma, tiempo compartido, tratamiento, ventana, virus, visualizar,web
(자료 출처: http://jamillan.com/infordra3.htm).

servidor 등의 IT 용어들의 등재를 제안하였으며 2001년 RAE의 22판 사전이 발간된 이후 IT 분야의 용어들은 300여개 정도가 검토되었거나 검토중이다(Sánchez-Ron, 2006).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신문 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IT 분야 신조어들 가운데 많이 쓰이는 영어 차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vatar, banner, blog, buscador, chat, cookie, emoticono, internauta, intranet, navegador, red social. 구체적인 통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통신 기기와 관련된 용어들 가운데 사용 빈도수가 높은 몇 가지 단어들이다. avatar, buscador, navegador 등은 RAE 사전에 등재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인터넷 사용자들이 부여한 새로운 의미(*avatar*: foto o imagen que representa en el mundo virtual a una persona, *navegador*: un software que permite ver páginas de web)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blog의 경우 bitácora라는 스페인어 용어가 쓰이긴 하지만 DRAE에 등재된 단어의 뜻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Especie de armario, fijo a la cubierta e inmediato al timón, en que se pone la aguja de marear. 또한 cookie (término informático para información sobre un usuario almacenada de forma local)나 spam (correo basura o mensaje basura)의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스페인어 용어 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Real Academia de Ciencias Exactas, Físicas y Naturales는 Diccionario Esencial de las Ciencias를 발간하였는데 스페인의 저명한 생화학자이자 Real Academia Española de la Lengua의 회원이기도한 Margarita Salas는 이 사전에 등재된 단어들의 대부분은 DRAE에도 등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5] RAE 사전의 역할인 "표준화 기능"은 바로 과학 기술 분야와 같이 기준이나 규범이 부족한 분야에 더 필요하기 때문이

15) http://www.elpais.com/articulo/cultura/cientificos/estamos/abiertos/humanidades/elpepicul/20011230elpepicul_1/Tes

라는 것이 논자의 주장이다. 정보 통신 분야에서 새로이 생산되어 영어로 이름이 붙여진 개념이나 산물은 스페인어화하여 명명하기에 한계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영어”가 바로 그 분야의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RAE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과학 기술 분야의 신조어를 규범화하고 영어 차용어의 번역용어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어 화자들(그리고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기준”이 되고자 하면서도 8년 혹은 10년마다 한 번씩 개정되는 DRAE는 IT 분야의 속도와 요구를 따라갈 수 없음이 분명하다. 좀 더 유연하고 덜 아카데믹하며 전문 “용어”에 발 빠르게 반응하여 언중들에게 실용적인 어휘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도구가 필요하다.

Ⅳ. 맺는말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생겨나고 이와 관련된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이에 적응하고 있다. 관련 기관들의 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규정된 다듬은 말은 실제 사용자들이 쓰는 용어와 다르거나 어떤 신조어들은 아직 표준화되지 않아 여러 가지 형태로 공존하고 있어 정보 통신 분야 신조어들의 사용 실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 생겨난 용어들은 과도기를 거쳐 스페인어화 되거나 스페인어 고유 단어의 사용이 정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기는 IT 분야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사용이 확대되어 가면 계속 반복될 것이다. IT 분야의 변화 속도에 비해 관련 용어 연구들의 속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과정에 대해 언어학자들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고는 스페인어 연구자이기 앞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스페인어 IT 분야 용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스페인어 교수자로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용어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스페인어 IT 분야 용어에 대한 실태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인터넷, 컴퓨터, 모바일 통신 기기 등과 관련된 용어들이 필수 어휘 목록에 들지 않았지만 현재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겐 필수 어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다음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우선, 더 많은 양의 자료(예를 들면, 스페인어로 출간된 IT 분야 용어집 등)를 분석하면 좀 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새로운 어휘를 받아들일 때의 자세를 좀 더 심도깊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페인어 사용 국가들간의 신조어 생성 유형의 차이에 대해 비교 분석 한다면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대할 때 즉 타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접하게 된 새로운 지식이나 생산물을 표현할 때 각국의 스페인어 사용자들이 어떻게 반응 하는가, 외국 문화의 수용 양상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보 통신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영어 어휘들의 차용 실태를 "오염 contaminación" (Rodríguez Barrientes 1996) 또는 "부패 / 변질 corrupción" (Vaquero 1997) 이라 일컬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개념들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아야 하므로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차용되는 영어 어휘들을 비롯한 신조어들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결과이다. 신조어들은 문화와 유행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한 언어의 어휘에 활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스페인어 표현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외래어의 사용은 불가피

하게 자국어의 순수성 유지와 대립하게 되는데 관련 기관들이 언어순화의 목적이 순수성 유지인가 의사소통의 효율화인가를 확실히 결정하여 언어 현실을 고려한 외래어 정책을 재정비하고 정보 통신 분야의 올바른 용어 정립에 나서야 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정보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신조어 특히 외래어의 유입과 사용은 이미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영어권을 제외한 언어권에서는 이러한 지배적인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구 그리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자임과 동시에 스페인어 교육에도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우리 교수자들은 스페인어 전문용어와 신조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직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어휘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유연창(2004), “현대 스페인어의 어형성과 신조어의 유형”, 「스페인어문학」, 제30호, 한국스페인어문학회, pp.89-106.

Calvo Roy, A.(2003), “La palabra precisa, y muy deprisa” en *Ciencia, tecnología y lengua española: la terminoogía científica en español,* FECYT, INDUGRAF Madrid, S.A.

de Semir, V.(2003), “La comunicación de la ciencia en la sociedad del conocimiento”en *Ciencia, tecnología y lengua española: la terminoogía científica en español,* FECYT, INDUGRAF Madrid, S.A.

Hughes, G.(2002), *A history of english words.* Oxford:Blackwell.

Lázaro Carreter, F.(2008), *Diccionario de términos filológicos.* Madrid: Gredos.

Lope Blanch, J.(1972), "El léxico de la zona maya en el marco de la dialectología mexicana", Nueva Revista de Filología Hispánica, México, Vol.XX, No.1, pp.1-63.

Millán, J. A.(2004), *Los términos informáticos en el Diccionario de la Academia,* http://jamillan.com/infordra1.htm

Martín Municio, A. y Colino, A.(2004), *Diccionario español de la energía,* Madrid: Doce Calles, http://www.miliarium.com/paginas/biblio/Externas/Introduccion.pdf.

Moreno de Alba, J.(1972), *El Español de América. El Español de México.* México: Programa Nacional de Formación de Profesores(PNFP). Asociación Nacional de Universidades e Institutos de Enseñanza Superior(ANUIES).

_____(1999), *El lenguaje en México.* México: Siglo Veintiuno Editores.

Navarro González, F.(2000), *Diccionario crítico de dudas inglés-español de medicina,* Madrid: McGraw-Hill/Interamericana de España.

Pfaffenberger, B.(1996), *Diccionario para usuarios de computadoras e Internet,* Prentice- Hall Hispanoamericana S.A.

Salas, M.(2001), "Los científicos estamos abiertos a las umanidades", El País, (2001.12.30). http://www.elpais.com/articulo/cultura/cientificos/estamos/abiertos/humanidades/elpepicul/20011230elpepicul_1/Tes

Sampedro Losada, P, J. (2000), http://www.ati.es/gt/lengua-informatica/

externos/sampedr3.html (2011.04.28).

Sánchez-Ron. J. M.(2006), "El idioma ciéntifico y la Real Academia Española", Curso de verano de la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Rodríguez Barrientos, M.(1996), "Extranjerismos en el lenguaje de la informática". ACTA http://www.acta.es/index.php?option=com_jdownloads&Itemid=19&task=viewcategory&catid=27

Rosenblat, A.(1990), "Actual nivelación léxica en el mundo hispánico". *Biblioteca Angel Rosenblat, Vol. III. Estudios sobre el español de América.* Venezuela: Monte Avila editores. pp.339-388.

Ueda, H. (2001), "Estudio de la variación léxica del español en el mundo. El método intensivo y el extensivo", en *Homenaje a Humberto López Morales:* lecture.ecc.u-tokyo.ac.jp/~cueda/kenkyu/chiri/met-int-ext2.doc.

Vaquero, A.(1997a), *"La corrupción del lenguaje por la informática",* Revista de Informática y Automática. Vol.30, No.2, pp.89-93.

_____(1997b), "El Uso de la Palabra Ordenador", El Mundo. http://www.elmundo.es/su-ordenador/SORnumeros/97/SOR066/SOR066tribuna.html (1997.02.23).

데이터 출처

"Las tabletas inundan el CES", http://www.elpais.com/articulo/Pantallas/tabletas/inundan/CES/elpepirtv/20110106elpepirtv_1/Tes, El País, 2011/

1/6.

“Tabletas acaparan reflectores del CES 2011 en Las Vegas”, http://www.elsemanario.com.mx/news/news_display.php?story_id=52319, El Semanario, 2011/1/6.

“Bailando al ritmo del ausente: Apple”, http://www.elpais.com/articulo/Pantallas/Bailando/ritmo/ausente/Apple/elpepirtv/20110109elpepirtv_1/Tes, El País, 2011/1/9.

“10 tendencias tecnológicas para el 2011 presentadas en el CES”, http://laprimeraplana.com.mx/2011/01/10-tendencias-tecnologcas-del-2011/, La Primera Plana, 2011/1/10.

“El nuevo mundo de las tabletas amenaza a los portátiles”, http://www.elpais.com/articulo/Pantallas/nuevo/mundo/tabletas/amenaza/portatiles/elpepirtv/20110123elpepirtv_1/Tes, El País, 2011/1/23.

“Apple, tercer fabricante mundial de ordenadores gracias al iPad”, http://www.elpais.com/articulo/tecnologia/Apple/tercer/fabricante/mundial/ordenadores/gracias/iPad/elpeputec/20110128elpeputec_1/Tes, El País, 2011/1/28.

“Entérate un año de iPad”, http://www.eluniversal.com.mx/articulos/ 62664.html Cuatro teléfonos, El Universa, 2011/1/27.

“Windows Phone 7 adelantan su llegada a España”, http://www.elpais.com/articulo/Pantallas/telefonos/Windows/Phone/adelantan/llegada/Espana/elpepirtv/20101012elpepirtv_3/Tes, El País, 2010/10/12.

“Microsoft lanza su Windows Phone 7”, http://www.eluniversal.com.mx/articulos/61024.html, El Universa, 2010/10/11.

“Facebook se rediseña, otra vez”, http://www.elpais.com/articulo/

tecnologia/Facebook/redisena/vez/elpeputec/20100205elpeputec_4/Tes, El País, 2010/2/5.

"Facebook cumple seis años", http://www.eluniversal.com.mx/articulos/57452.html, El Universal, 2010/2/5.

"Parobook, una red social para parados", http://www.elpais.com/articulo/tecnologia/Parobook/red/social/parados/elpeputec/20110128elpeputec_4/Tes, El País, 2011/1/28.

"Parobook, la red social para desempleados", http://www.eluniversal.com.mx/articulos/62663.html, El Universal, 2011/1/27.

"Google presenta su sistema operativo", http://www.elpais.com/articulo/tecnologia/Google/presenta/sistema/operativo/elpeputec/20101207elpeputec_7/Tes, El País, 2010/12/7.

"Google presenta versión beta de Chrome OS", http://www.eluniversal.com.mx/articulos/61910.html, El Universal, 2010/12/7.

▌논문투고일자: 2011년 10월 20일
▌심사완료일자: 2011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2월 22일